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원유, G7·러시아】 G7, 12.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합의

【IRA, 미국·EU·한국】 EU-美 IRA 전기차 보조금 TF 회의 개시, 한국도 의견 제시 완료

【황린, 중국】 中, 낸드플래시 핵심 소재 황린 감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영향 우려

【광물, 캐나다·중국】 캐나다, 자국 핵심광물 기업에 투자한 中 광산회사 3곳에 지분 매각 명령

【경제협력, 독일·중국】 방중 독일 솔츠 총리,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

【에너지, 일본】 日, 전력난 우려로 절전 요청

【ESG, 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회, 국내법 통해 강화된 기업 공급망 실사법 추진

【반도체, 대만·EU】 대만, EU와 반도체 상호 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 촉구



GVC 뉴스 더하기

- 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② 일본 기업의 탈중국 공급망 모색 움직임



GVC 기초상식

인코텀즈(INCOTERMS) 3편 - 주요조건과 실무탐사례



GVC 돌보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직접 개입 등 최근 전기차 산업 동향



GVC 전문가

“시진핑 3기 집권 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우리 기업 대응전략”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안병선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안내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원유, G7·러시아】 G7, 12.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방안 합의**

- 11.3일 로이터통신은 G7이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12.5일부터, △석유제품은 내년 2.5일부터 고정된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
 - '22.5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취지로 가격상한제 추진 방침을 공개 천명한 이후 G7 및 유럽 국가들 사이에 관련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 호주 또한 동참 의사를 표했으며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G7의 합류 타진 대상
-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 수치는 조만간 책정될 예정이며, 상한 수치는 정기적으로 검토·조정되어 시장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 가격 상한선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40~60달러/배럴, 로이터 통신은 63~64달러/배럴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당초 원유 지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특히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감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함께 급등해 러시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기로 결정
-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국가들에게 석유 운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G7 국가들은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

출처: 연합뉴스(22.11.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IRA, 미국·EU·한국】 EU-美 IRA 전기차 보조금 TF 회의 개시, 한국도 의견 제시 완료**

- 미국과 EU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4일 첫 TF 회의를 개최했음. 美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IRA 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계획
 - IRA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EU측은 유럽산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 요청 중
- 아울러, 美 재무부는 11.4일 IRA 인센티브 시행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마감했음. 우리나라 역시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①차별성 완화 방안 마련, ②배터리 요건 구체화, ③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등 의견 제시

출처: 로이터(22.11.3), 연합뉴스(22.11.4) 등 언론보도 및 산업부 보도자료(22.11.4),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황린, 중국】 中, 낸드플래시 핵심 소재 황린 감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영향 우려**

- 세계 황린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황린 생산량을 줄여 반도체 업계에 영향이 우려됨
 - 원난성 정부는 9.25일 겨울 전력난 대란에 대비하여 '22.8~'23.5월 에너지 소비 산업의 효율관리 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 따라 황린 생산업체 3개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18개사는 생산량 감축. 이에 따라 한 달여 만에 원난성 황린 일일 생산량은 42% 감소
 - 황린은 반도체 낸드플래시 핵심소재 고선택비인산의 원료로 사용되며 고온의 생산공정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 에너지 고소비 화학제품으로 수력발전 의존도가 80%인 원난성은 올 여름 가뭄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했던 상황. 원난성과 같이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쓰촨성, 구이저우성은 8월부터 황린 생산공장의 대부분 폐쇄
- 황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상승 우려도 제기되었음. 中 경제일보는 중국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성이서를 인용해 10.13일 원난성 황린 시가는 3만7,500위안/톤으로 9월초 대비 13.64% 상승했다고 보도. 이 가격은 연중 최저점인 8월 초와 비교하여 50% 상승한 가격임
 - 중국산 황린의 46%는 원난성, 23%는 쓰촨성, 19%는 구이저우성에서 생산. 3개 지역을 합하면 중국 전체 황린 생산량의 90%에 육박

- 중국 석유산업 정보망인 룡중쯔쑤는 10.31일 보고서를 통해 “4분기에도 황린 시장가격이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에는 가격은 오르지만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윈난 지역 전력 제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갈수기 전력가격 상승은 원가 방면에서 황린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 전망
-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의 對中 인산 의존도는 80%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황린 감산과 이로인한 가격상승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출처: 파이낸셜뉴스(22.11.3)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광물, 캐나다·중국】 캐나다, 자국 핵심광물 기업에 투자한 中 3개 광산회사에 지분 매각 명령

- 11.2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배터리와 첨단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희토류, 카드뮴 등 핵심광물 공급원에 대하여 외국의 개입을 제한하고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되도록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 발표하며 중국 3개 광산회사에 지분 매각 명령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내 배터리 판매 기업은 '23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비율(23년 40% → '27년 80%) 이상 조달해야 하기에,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캐나다가 중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여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기업도 증가
- 캐나다 정부가 자국 광물업체 既투자 지분 매각을 명령한 중국 기업은 △파워메탈에 투자한 시노마인희소금속자원(홍콩), △리튬칠레에 투자한 청쩌리튬인터내셔널(홍콩), △울트라리튬에 투자한 쟡거광산투자(청두) 3개社임
- 프랑수아-필립 상파뉴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엄밀한 국가안보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반길 것이나 국가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협하는 투자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美 IRA에 따라 캐나다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출처: 뉴시스(22.11.3), 이데일리(22.11.3) 등 언론보도 KOTRA 토론토무역관 종합

■ 【경제협력, 독일·중국】 방중 독일 솔츠 총리,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

-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는 11.4일 12개 기업 CEO 등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 연쇄 회담을 진행. 이는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연임 집권 3기 시작 및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서방 지도자의 중국 방문임
 - 솔츠 총리 방중은 미국을 비롯 서방국가들의 對中 견제 강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내외 비판 속에서 이뤄짐
-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유럽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미국의 對中 포위망 강화 속에서 자주성을 견지해달라고 당부
 -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핵심 이익을 배려하며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고 진영 대결 등의 방해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며 “중국과 유럽 관계가 서로 대립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항상 유럽을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간주하고 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한다”고 덧붙임
- 시 주석의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발언과 중국이 총리 방문에 맞춰 자국내 외국인에게 독일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에어버스 여객기 140대 (약 24조 원) 구입을 결정한 것은 실리적 측면에서의 솔츠 총리의 방중 명분을 제공
 - 솔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라며 “독일은 무역 자유화와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며 디커플링을 반대한다”고 화답. “서구는 다극화된 구도를 필요로 하고 신흥국의 역할과 영향은 중시되어야 한다”고 언급
- 독일 내에서는 솔츠 총리의 방중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반면 중국 매체들은 솔츠 총리 방중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
 - (독일) 도이체벨레(DW)는 “독일 정부의 전략에 어긋나는 동시에 EU의 통합을 위태롭게 했다”며 부정적 평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솔츠 총리가 해야 할 말을 한 것은 안팎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중국 방문이 옳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라고 평가

-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는 솔츠 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독일은 여전히 앙겔라 메르켈 前 총리가 구축한 전략적 자주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 관영 환구시보는 “솔츠 총리의 방중은 의의가 크고 중·독, 중·유럽 고위층의 상호방문 재개 버튼을 눌렀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독 관계와 중·유럽 관계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정추 역할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

출처: 경향신문(22.11.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에너지, 일본】 日, 전력난 우려로 절전 요청

- 일본 정부는 에너지 대란 등으로 인한 전력난을 우려하여 7년만에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절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
 - 일본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 △실내 온도 낮추기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전에 협조해 주길 당부하며, 월간 전력 사용량이 전년동기대비 3% 이상 줄어든 가정에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올해 6월 일본의 전력 공급 예비율은 도쿄 △0.6%, 서일본 1.3%로 최저 기준인 3%를 밑돌았으나, 현재 정지중인 화력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수급이 개선되어 겨울에는 3%를 넘을 것으로 예상
 -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일본 주요 조달처인 말레이시아·미국의 설비 문제에 따른 안정적 조달에 대한 우려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책을 결정했다고 언급

출처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22.11.7)

■ 【ESG, 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회, 국내법 통해 강화된 기업 공급망 실사법 추진

- EU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1.1일 네덜란드 의회는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국제비즈니스법안(Responsible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Business Act)’을 하원에서 발의
- 동 법안은 EU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 법안보다 기업에게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중인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EU 공급망 실사 법안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시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기업 면책을 위해서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요구
 - * 적용 대상 기업: 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 5,000만 유로 이상/ 자산가치 4,300만 유로 이상 기업 → '30년 이후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 다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6개 정당은 네덜란드 하원의 다수를 점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을 설득해야 하며,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반복될 가능성 상존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8)

■ 【반도체, 대만·EU】 대만, EU와 반도체 상호 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 촉구

-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11.3일 EU와 반도체 분야 상호 투자 및 기술교류 협력 확대를 촉구
 - 차이잉원 총통은 최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노골적인 팽창주의에 따라 발생한 글로벌 질서 위협에 대해 민주 진영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차이잉원 총통은 EU 등 민주 진영이 대만과의 양자 및 다자간 반도체 분야 투자 및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 의회가 EU-대만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지원하여 협상에 소극적인 EU 집행위를 설득해 줄 것을 촉구
- 현재 EU는 첨단 분야 반도체의 90%를 대만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시진핑 주석의 對대만 강경 노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1.4)



GVC 뉴스더하기 ①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최근 코로나-19, 美-中 경쟁 등 글로벌 첨단산업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력은 단순 산업경쟁력을 넘어 미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22.8.4),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22.11.4)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 보도자료 및 정책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필요성)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핵심 첨단기술 및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필요
 - (육성) 「산업발전법」, (보호)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 특례와 기업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여 속도 경쟁에서 우리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
- (구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
 - 정부위원^(12명)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2차)·기재·교육·과기·외교·환경·국토·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 민간위원^(8명) : [산업계] 대한상의 회장, 한국전자산업협회 회장, 네이버 사장, 지아이노베이션 회장, [학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계] 한국과학기술원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 1차 위원회 주요 논의 결과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신규 지정)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함.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후 구체적인 세부 기술수준(D램 공정 선평, 낸드 적층 단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등)을 지정고시할 계획

구 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15개)
반 도 체 (8)	메모리	○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비메모리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디스 플레 이 (4)	패키징	○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칩 설계 기술
	OLED	○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차세대 DP		○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조립·검사기술
이차전지(3)	OLED	○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 친환경 QD 소재 적용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이차전지(3)	차세대 DP	○ Nan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이차전지(3)	차세대 DP	○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기술
		○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 (지정 대상) ①업종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영향, ②성장잠재력 및 기술난이도, ③연관산업 파급효과, ④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지정 절차) 관계부처·기업 신청 → 기술조정위원회 심의(위원장 : 과기혁신본부장) →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총리)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기본계획 확정, △특화단지 지정 등 중요 사항 결정

② 특화단지 추진계획

- (필요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부장 기업·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입지, 인프라 구축,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필요
- (평가계획) 금년 중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
- (지정절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22.11) → 지정공모 및 합동설명회('22.12) → 평가 및 컨설팅('23.초) → 지정('23.上)

③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 (필요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세부 기술분야별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성화대학원 추진 필요
- (목표)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닌 기업의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추진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대상 특성화대학원 추진
 - (반도체)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중 약 5천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
 -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예정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경제안보 실현에 기여
- (향후계획) 내년초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



GVC 뉴스더하기 ② : 일본 기업 탈중국 공급망 모색 움직임

◆ 최근 미·중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간 공급망 재편을 의미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한 일본의 탈중국 공급망 모색 움직임을 살펴보자

■ 중국 공급망 단절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 세계 제품의 약 30%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품목에서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한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은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한 일본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 예상
 - 일본의 수입 총액 중 중국産 비중은 26%로 미국 19%, 독일 11%에 비해 높은 수준 (20년 기준)
 - 품목별 수입액에서 노트북, 태블릿 단말기,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등 중국산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이 1,133개에 달해 미국(590개)이나 독일(250개)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19년 기준, 내각부)
- 일본의 중국산 부품 수입의 80%(약 1조4,000억 엔 규모, 약 13.3조 원)가 2개월 동안 단절되면 가전, 자동차, 수지뿐 아니라 의류, 식품 등의 생산도 중단되어 약 53조엔(약 503.5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이 소실될 것으로 추산 [와세다대 토도 야스유키 교수 등]
 - 이는 일본 연간 GDP의 10%에 해당하는 손실이며 2주 정도의 단기 수입 두절시에는 재고 물량을 활용하여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2개월 이상 장기간의 경우 생산량 감소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

■ 일본 기업들의 탈중국 공급망 모색

- 일본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사업 확대와 함께 유사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방안으로 △재고를 적립해 만일에 대비하는 JIC(Just-in-Case)로 상품관리방식 변경*, △공급선 다변화, △일본내 제조·조달로 전환, △지역에 따른 제조·유통망 형성** 등 검토·추진
 - * JIC(Just-in-Case)는 필요한 만큼의 재고만을 확보하는 JIT(Just-in-Time)에서 조정된 방식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장가동을 계속 유지시켜 유사시에도 제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목적
 - ** 지역에 따른 제조·유통망 형성시 고객 인근에서 조달·제조·유통 등을 추진하여 특정 지역의 생산이나 물류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문제없이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됨

〈 일본 기업별 공급망 재편 추진 내용 〉

기업명	추진 내용
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다의 자동차 세계 판매에서 중국 비중이 30% 이상인 만큼 중국 사업 확장 노력을 지속하되 중국 공급망 단절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동남아 등 타지역 조달시 비용 산출 및 중국산 부품 사용 최소화 방안 검토, 중국에서 제조하는 차량의 부품은 중국내에서 조달하는 방안 모색 등 공급망 재편 추진
도요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T에서 JIC로의 전환) '21년 가을부터 반도체 재고를 3개월치에서 5개월치까지 늘리도록 일부 거래처에 전달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재고 확대 추진 등 사업의 계속성 확보
다이킨 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 중국산 부품 없이도 에어컨 생산 가능한 공급망을 '23년까지 구축할 방침
사카이 중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건설기계 부품 공급선, 중국 단일 조달 →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 ('22)
니치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식품 일부 생산을 중국 등에서 일본내로 이전 결정
미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부품의 일본내 제조 요청 및 재고 확대 요청 • 제조비용 낮은 지역에서 부품 생산 방식 → 조립 및 운송 포함한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미츠비시 로지스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對유럽 수출 엔진식 지게차를 유럽 현지 생산으로 전환, 중국 의존 조달구조 탈피 • 중국 다렌 공장 제조 → 스페인 공장으로 전량 이전 / 부품은 일본 및 현지에서 조달 추진 예정

■ 시사점

- 우리기업 역시 중국 등 일국(一國) 의존도 완화를 위해 △JIC로의 전환(재고 확대), △공급선 다변화, △국내 제조·조달로 전환, △지역별 제조·유통망 형성뿐 아니라, △범용 부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설계 변경, △신규 가공기지 및 물류 시스템 정비 등 검토 가능



GVC 기초상식: 인코텀즈(INCOTERMS) 3편 - 주요 조건 실무팁·사례

◆ 신라의 섣덕여왕은 당나라 태종이 보낸 모란꽃 그림에 나비가 없음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임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진정 모란은 향기 없는 꽃일까? 진실을 알려면 꽃이 피는 현장으로 가봐야 하겠다. 금번 호에서는 인코텀즈 2020이 실제로 활용되는 무역현장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

〈인코텀즈 기초상식 시리즈〉

33호: 인코텀즈의 해석
34호: 인코텀즈의 세부 내용
35호: 주요 조건 실무 팁과 사례

■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의 영업장 내에서 납품하는 조건. 일반적으로 수출항/공항까지의 내륙수송비를 수입자가 부담
- **지정된 납품장소에 따라 수출항까지의 수송비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예시) EXW 파주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입자
EXW 부산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출자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조건
- **수출자가 수출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출단가에 내륙운임 포함**

(예시) 수입자가 '수입국 법률에 따라 수입자측 운송인(이하 포워드)이 지정한 수출국내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임을 주장하는 경우

- 이 경우 수입자와 수입자측 포워드간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 수입자측 포워더가 수출 국내 포워더에게 수출자 영업장에서 물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수출자가 운송계약 미체결' & '수출자 영업장에서 물품 인도'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공장인도 가격(EXW)으로 견적하고 수출계약 체결
 - 물품 납품 및 거래 종결 후 수출국내 포워드로부터 내륙운송관련 청구서 수령 및 결제
- (결론)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라도 당초 수출단가 계산할 때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하여 견적 필요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조건
- **국제운송 중 사고로 수입자에게 물품이 전달되지 못했더라도 수출자는 물품대금 청구 가능**

(예시) 'CIF 싱가포르항' 조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계약에 적합한 상태의 물품을 선적하였으나 운송 중 선박의 기관 고장으로 수입항 입항에 실패하여 수입자의 물품 추구가 불가한 경우

(결론) 수출자는 위 상황에도 물품대금 청구 가능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보험서류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받아 손해를 줄일 가능성

-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서류를 제공해야 함**

〈CIF 조건 下 수출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조건 : ICC(C) 또는 ICC(F.P.A.)
- 보험금액 : 수출금액에 10%를 더한 금액(110%)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 : 수입자

(결론) 피보험자로 수출자를 기재한 보험서류를
입수하였다면, 수출자의 배서 필수

* 배서(endorsement):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 **CIF조건에서 손해배상액 계산시 서류 도착예정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함**

(예시) 'CIF 영국' 조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자가 납기내 납품을 불이행하고, 이에 수입자가 물품 도착예정일의 (수입국) 시장가격과 계약가격과의 차이를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 수출자가 납품했다면, 서류는 7월 21일, 물품은 8월 30일에 런던에 도착할 예정이었음

(결론) 법원의 판단: 손해액은 계약가격과 서류도착예정일의 시장가격의 차이로 함

■ CFR (cost &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자가 운임을 선지급하고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조건

- 수입자, 수출자에게 도착항 양하비(unloading cost) 구분 기재한 서류 요청하기

(예시) 수출자와 수입자간 CFR조건 또는 CIF조건으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선급 & B/L에 도착항 양하비(unloading cost)를 구분 표기하여 발행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운송서류 제공

(결론) 수입자는 위 운송서류를 근거로 도착항 양하비를 공제하여 과세가격 계산 및 수입신고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입자의 영업소에서 수입통관 완료된 물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출·수입통관을 모두 담당

- FTA 원산지증명서(C/O) 준비해서 관세 등 절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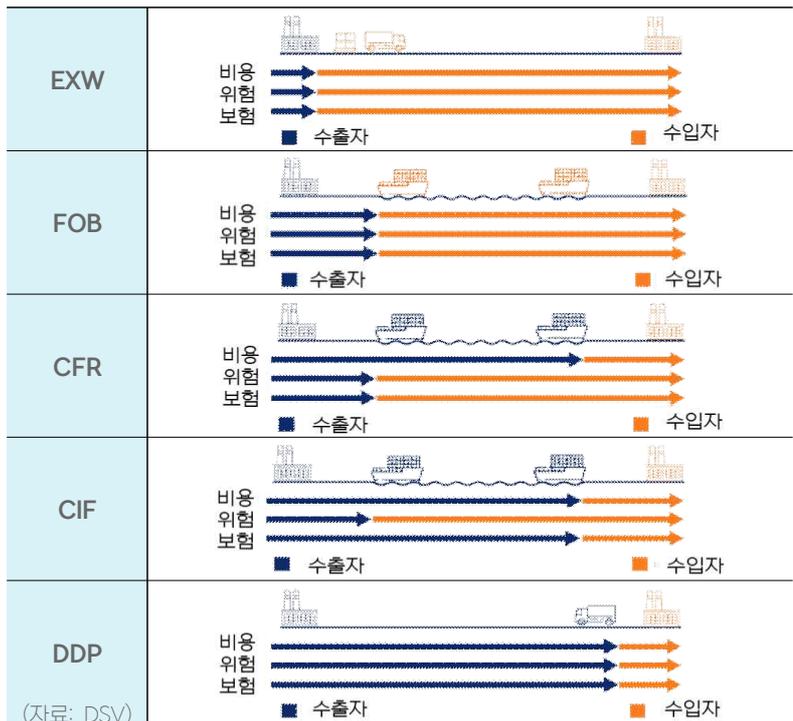
(예시) 온라인을 이용한 역직구 거래의 경우

- DDP 조건의 거래로 분류 가능하므로 수입통관 관련 행정비 및 관세 등 수입국 발생비용을 포함한 견적 필요
-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C/O를 이용하여 관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준비 필수
 - * 對미국 수출의 경우, C/O를 이용하면 관세 외에 물품취급수수료(MPF)도 함께 면제되므로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C/O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미국 세관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미국의 관세법 등 법률 준수 여부 심사 명목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참고: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

영문명칭	국문명칭
EXW	공장인도조건
FCA	운송인인도조건
CPT	운송비포함인도조건
CIP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DAP	도착지인도조건
DPU	도착지양하인도조건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FAS	선측인도조건
FOB	본선인도조건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참고: 주요 인코텀즈 2020 조건>



※오류 수정

지난호(34호) 인코텀즈 세부 내용 편 [조건별 납품의무 이행장소] 항목의 내용 중 예) CIF L.A.항 부분은 DAP L.A.항으로 수정합니다. 구독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GVC 돋보기 :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직접 개입 등 최근 전기차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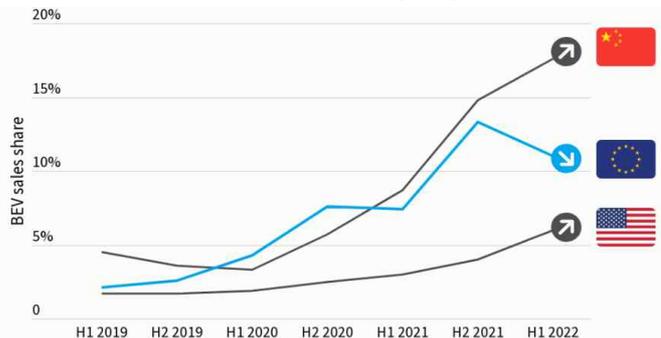
◆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에 합의하는 등 역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이미 확보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서방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자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까지 나선 서방 완성차 업체 동향 등 최근 전기차 산업 현안을 살펴보자

-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전망,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탄소배출 규정도 합의
 - EU 이사회와 의회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합의, '35년 역내 탄소 100% 감축 기준 적용으로 내연 승용차, 밴, 소형화물차 신규 판매 금지 예정
 - 동 규정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21.7월 발표된 '기후대응법안패키지(Fit for 55)' 중 가장 먼저 입법기관간 합의에 도달. 향후 이사회와 의회 공식 채택 절차를 걸쳐 최종 발효 예정
 - 또한 EU는 '30년부터 신차에 적용할 탄소감축 목표 기준에도 합의하여, 승용차는 '21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밴은 '21년 대비 50% 감축 의무 적용 예정
 - '30년까지 제조업체에 대한 저공해차(ZLEV) 판매 인센티브* 유지, 제조업체는 ZLEV 판매량 충족시 업체별 탄소배출 목표 완화
 - * EU는 '30년 기준 저공해차(50gCO₂/km 미만 배출)를 일정비율 이상 판매(승용차 25%, 밴은 17% 이상)할 경우 제조업체에 업체별 탄소배출 기준을 최대 5%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
 - 해당 연도의 업체별 탄소배출 목표보다 초과 배출시 1gCO₂/km 당 95유로 벌금
 - 이외 자동차 수명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을 감시하는 신규 규제 및 합성연료 사용 가능성 시사
 - 집행위는 역내 판매되는 자동차 수명주기내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25년까지 새로운 방법론 도입 예고

■ 전기차 전환기 중국 기업의 활발한 EU 시장 진출 및 역내 경쟁 심화 전망

- 전문가들은 EU의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 금지' 법안으로 인해 EU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내연차 시장이 축소되어 향후 중국 신생기업의 EU 전기차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기에 이미 구축한 값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방대한 내수시장 기반의 경쟁력을 보유함. 이러한 중국과 달리 주요 원자재 역외 의존이 심한 EU는 공급망 취약성이 우려됨
- 한편 EU의 '22년 자동차 시장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11%에 머문 반면 중국은 18%로 증가,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 1위 기록

〈 국가별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BEV) 판매 점유율 〉



출처: T&E, 유럽운송환경연합

- 또한 독일언론 DW(Deutsche Welle)에 따르면 중국은 내수 시장 확대로 전기차 브랜드 및 모델이 증가하는 추세로, '22년 상반기 10대 전기차 제조사*에 중국 제조사가 4개 포함되었음

* '22년 상반기 매출 기준 10대 전기차 제조사 순위 - ① 테슬라, ② BYD(中), ③ SAIC(中), ④ 폭스바겐, ⑤ 현대기아, ⑥ 스텔란티스, ⑦ 지리(中), ⑧ BMW, ⑨ Xpeng(中), ⑩ 르노

■ 전기차 경쟁력은 배터리를 넘어 원자재,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공급망까지 개입하는 차량 제조사들

-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¹⁰⁾\$1,220kwh → ⁽²¹⁾\$132kwh까지 장기 하락 추세였으나, '22년 들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가격상승으로 장기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리서치업체 미네랄인텔리전스(BMI)에 따르면 정제 수산화리튬 가격은 약 7만 달러/톤으로 '21년초 대비 8배 이상 상승. 리튬이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는 배터리 원가의 77% 차지
 -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난 2년간 지속된 반도체 부족과 같은 장기 공급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함
- 또한 Financial Times는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동차배터리 제조사가 공급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국가의 보조금 등 산업정책이 배터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 원자재 접근성 및 가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일부 완성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투자 및 인수 등 방식의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직접 확보를 검토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복잡한 화학 처리 과정의 리튬 정제 기술이 차량 제조업체의 핵심 전문지식과는 거리가 멀고, 리튬의 공급원이 되는 '스포듀민(Spodumene)' 확보 또한 어려워 가용성 및 비용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

<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원자재 확보 관련 동향 >

회사	주요 내용
테슬라	지난 9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리튬 정제소 설립을 위한 세금감면 신청서 제출
포드	배터리 금속 탐사 및 개발 회사 Liontown Resources가 리튬 광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 발표
GM	리튬 광산 그룹인 Livent社에 2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
스텔란티스	독일내 리튬 생산을 추진 중인 Vulcan Energy Resources社 지분(5천만 유로) 인수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FT)

■ 시사점

- 배터리 가격이 급등한 최근 상황은 일부 구조적인 변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분석되기에,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감안한 전기차 산업의 방향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존재
- * 컨설팅사 Mountain House Partner의 대표 Chris Berry는 러-우 전쟁발 에너지 비용 급등, 금리 인상 등을 포함하는 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가 구조적으로 나타나 배터리 가격 인하를 더욱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유럽은 높은 배터리 역외 의존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의 배터리 산업은 고가의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중국 CATL, 한국 LG화학, 일본 파나소닉 등 아시아 기업에 의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
 - 리서치업체 미네랄인텔리전스(BMI)에 따르면 유럽은 올해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7% 생산할 전망인 반면 중국은 76%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
 - 전기차 모터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생산도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전기차 필수 부품 공급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출처 FT(9.20/10.10), Reuters(9.26), 유럽의회(10.27), EU이사회(10.27), Politico(10.27), DW(10.20)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전문가 : 시진핑 3기 집권 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안병선

◆ 지난 10월 개최된 20차 당 대회로 시진핑 3기 체계가 완성되었다. 중국 당 대회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내순환 활성화와 기술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경제노선을 제창하였다. 시진핑 3기의 경제발전 노선과 관련 핵심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의 개최와 시진핑 3연임 확정

- 중국은 지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집권체계를 완비하고 향후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발표
- 시진핑 3기 중국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으며 차기 지도자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체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
 - *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계는 공단당원 1억명 → 당 대회 대표 2,296명 → 중앙위원 205명 → 정치국 위원 25명 →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성

■ 시진핑 정권의 정책 목표

〈시진핑 정권 장기목표 및 실행계획〉



자료: 저자 작성

- 시진핑은 지난 2012년 총서기에 오른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오위일체'와 '4개의 전면'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두 개의 백년' 계획을 수립
 - '오위일체'란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생태문명 5가지 영역의 균형을 의미하며 '4개의 전면'이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개혁심화, 법치주의, 당을 엄격히 관리함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의 기본 원칙임
 - '두 개의 백년'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을 첫 번째 백년에는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 실현을, 두 번째 백년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함
- 한편,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
 - '중국 특색사회주의'란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만의 독특한 운영체계를 의미
 - '신시대'란 중국 경제가 2000년대까지 이어지던 고도의 양적성장 시기를 뒤로 하고, 중저속 성장 시기인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에 접어들어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뜻함
 - 중국은 금번 20차 당 대회에서 '신시대'의 중요 해결과제로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불평등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간의 모순"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두고 있음을 시사

■ 20차 당 대회 경제노선 및 중점 추진 정책

- 제20차 당 대회에서는 역대 당 대회들에서 지속 강조되어온 **사회주의 현대화의 내용을 승계·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명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 방향으로 ①**질적성장** ②**경제체제 업그레이드** ③**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④**공동부유** ⑤**녹색개발**을 제시하였음
- 이에 기반하여 향후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기술력 증진**을 중간 목표로 두고 **△신형 도시화, △신형 인프라,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2025, △쌍창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20차 당 대회 핵심 경제노선과 관련 주요정책〉



신형인프라	• 5G, 데이터센터, 고속·도시철도 등 차세대 인프라 구축
신형도시화	• 호적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문제 해결
인터넷플러스	• 산업·경제·사회 등 수 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 을 통해 산업인터넷 부문 집중 육성
중국제조 2025	• 중국의 제조업 혁신 30년 로드맵으로, 반도체 자립 등 핵심 기술력 증진 을 위한 R&D 확대, AI·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력 확보
쌍창	• 대중창업, 만중창신(창업 활성화 및 창의성 발휘)을 통해 혁신주도 성장모델 구축 및 실업문제 해결

자료: 저자 작성

■ (시사점) 한국의 대응전략

- (성장산업 진출) 차세대 인프라, 스마트 제조 분야, 내륙 개발 등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진출전략을 적극 수립
- (지역별 맞춤전략) 19개 핵심 도시군별 특화산업, 중점도시-주변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고려한 진출방안 수립
- (2-3선 도시 공략)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모델 구축 전략에 따라 중국 2·3선 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비시장 공략
- (창업생태계 활용) 중국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우리 유망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현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 검토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안내

[한국무역협회]

■ 1.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포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주요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 일시/장소 : 11월 23일(수) 14:00~17:25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참가신청 : 11월 22일(화) 18:00까지 신청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작성 or 무역협회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포럼 전일 또는 당일 문자/이메일로 Youtube 시청 링크 송부 예정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GVC산업분석TF ☎ 02-6000-5177 / gvc_research@kita.or.kr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연사
14:00~14:05	• 개회사(5분)	정만기 부회장(한국무역협회)
14:05~14:10	• 축사(5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산업부)
14:10~14:25	• 기조연설(15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조상현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
14:25~15:25 (1시간, 각 20분)	• 세션 I :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전략과 시사점	
	- (미국)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연원호 팀장(KIEP)
	- (중국) 글로벌 전략 구조와 한·중 정치경제 구조 변화 속의 대중국 공급망 전략	백우열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한국)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정책 대응	김진(산업부 소부장총괄과)
15:25~15:40	Coffee Break	
15:40~16:40 (1시간, 각 20분)	• 세션 II : 핵심 산업별 이슈와 전망	
	- (반도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이승우 상무(유진투자증권)
	- (배터리)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합 속 K 배터리 산업 경쟁력 진단	최장욱 교수(서울대)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장)
	- (에너지) 러우 전장발 글로벌 에너지공급망의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이상열 팀장(에경원)
16:40~16:45	장내 정리	
16:45~17:25	• 세션 III : 패널 토론	
	- 사회 : 조상현 센터장 - 토론자 : 산업부 이경호 국장, 중앙대 백훈 교수, 과기정책연 백서인 단장, 산업연 이준 본부장	
17:25	폐회	

■ 2.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산학협동재단)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 학술 세미나

- 일시/장소 : 11월 25일(금), 15:00~17:30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해외주요국의 글로벌 기술패권 관련 정책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기중점 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 ESG 경영과 생태계 중심의 공급망 혁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항만물류 업계의 대응전략 연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참가신청 : 11월 24일(목)까지 신청 링크(클릭)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GVC산업분석TF ☎ 02-6000-5207

[KOTRA]

■ World-class Product Show GVC 진입 상담회

- 우수 소부장·프리미엄 상품 생산 강소·중견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1 비대면 소싱 상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GVC 진입 지원
 - 일시/장소 : 12월 1일(목)~2일(금) / 온라인
 - 참가규모 : 강소·중견기업 100개社, 한국 기업 발굴 희망 바이어 50개社
 - 신청기한 : 11월 18일(금) 限
 - 참가신청 : [World-class Product Show GVC 진입 상담회\(클릭\)](#) 내용 검토 후 ①신청하기 클릭하여 참가 신청 및 ②wcps2022(클릭)에서 세부 정보 기입 (1번 2번 모두 신청해야만 정상 신청됨)
 - 참고사항 : 북업코리아 연계 행사로 추진되며 필요시 국내기업 전담 통역 지원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이가경 대리 ☎ 02-3460-7231

■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2023년 세계시장을 조망하고 권역별 시장 이슈를 점검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로, KOTRA 지역 본부장과의 1:1 상담도 지원
 - 일시/장소 : 12월 7일(수) 10:00~17:30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연사	비고
10:00~10:10	개회사 및 축사		
10:10~10:30	특강: 급변의 시대, 기업들의 생존전략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 (前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10:30~12:00	세션1: 선진시장 (북미, 유럽, 일본)	각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1:1 상담
12:00~12:15	Q&A		
12:15~13:15	중식		
13:15~15:15	세션2: 프로젝트시장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CIS)	각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1:1 상담
15:15~15:30	Q&A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45~17:15	세션3: 주력시장 (중국, 서남아, 동남아대양주)	각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1:1 상담
17:15~17:30	Q&A		

- 참가신청
 - ① 얼리버드 (20% 할인) (~'22.11.13.(일)限 온라인 결제 / 88,000원 [VAT 포함, 오찬 제공])
 - ② 일반 (얼리버드 신청 기간 이후 별도 신청페이지 개설 예정 / 110,000원 [VAT 포함, 오찬 제공])
- 참여자 혜택 : 지역 본부장과 1:1 상담(사전매칭자 대상),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도서, 설명회 자료집, 2023 권역별 진출전략 책자 및 중식 제공
- 참가신청 :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얼리버드\)\(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 문의처 : KOTRA 구미CIS팀 ☎ 02-3460-7676/7678, research1@kotra.or.kr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뭄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드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 	포스코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클릭)													
 (SM상선)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한국궤 미주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미국 롱비치항 ※ 12월 항차 일정 업데이트 예정이며, 각 항차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고려해운)	[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복 제공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신청 사업안내 (클릭)													
[항공운송]															
 (대한항공)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 	(운임할인 및 지원사업) 사업안내 (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TCR</td> <td>인천, 평택</td> <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TSR</td> <td>부산</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 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가능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1. 9. 수)

[환율]

	'20.12.31	'21.12.31	'22.9.30	'22.11.4	'22.11.7	'22.11.8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55.90	1,419.20	1,401.20	1,384.90	-1.16%	+16.50%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419.00	1,401.60	1,384.50	-1.22%	+16.34%
₩/CNY	166.04	186.51	192.06	193.88	194.89	194.62	-0.14%	+4.35%
₩/Y100	1,051.19	1,032.48	964.30	959.44	951.90	943.91	-0.84%	-8.58%
Y/U\$	103.34	115.14	130.24	147.92	147.20	146.72	-0.33%	+27.43%
U\$/EUR	1.2279	1.1318	1.0544	0.9779	0.9946	0.9999	+0.53%	-11.65%
CNY/U\$	6.5305	6.3681	6.5975	7.2545	7.2214	7.2467	+0.35%	+13.80%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1.7 (전일)	'22.11.8				
					전일(11.7)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2.92	92.34	▼0.6 -0.6%	▲42.3 +84.5%	▲15.2 +19.7%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87.95	89.05	▲1.1 +1.3%	▲1.8 +2.0%	▼31.7 -26.3%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954.50	7,974.00	▲19.5 +0.2%	▲218.5 +2.8%	▼1,718.0 -17.7%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292.00	2,327.00	▲35.0 +1.5%	▲375.5 +19.2%	▼479.0 -17.1%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2,950.00	23,410.00	▲460.0 +2.0%	▲7,503.0 +47.2%	▲2,485.0 +11.9%

[반도체]

	'20	'21	'22.7	'22.8	'22.9	11.3	11.4	11.7	11월(~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11	2.76	2.51	2.20	2.21	2.17	2.2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1.6%	-34.0%	-32.7%	-32.8%	-33.2%	-33.6%	-31.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83	6.57	6.57	6.55	6.55	6.55	6.5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1.4%	-4.2%	-5.4%	-10.8%	-10.8%	-10.8%	-11.0%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9.30	'22.10.21	'22.10.28	'22.11.7		
						전주(10.28)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922.95	1778.69	1697.65	1579.21	-7.0%	-68.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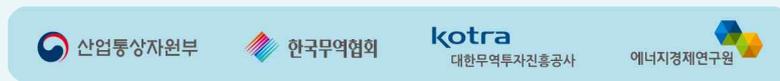
구 분	'21.12.24	'22.8.31	'22.10.31	'22.11.3	'22.11.4	'22.11.7		
							전일(11.4)비	'21년말비
BDI	2217	965	1463	1290	1323	1337	+1.1%	-39.7%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